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39호

2022 국정감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열 건 중 여섯 건, 처리기한 넘겨

조용철 파이낸셜뉴스 기자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마련…현장목소리 청취

박지혁 뉴시스 기자

체육계 솜방망이 처벌…감독 강화해야

비리 체육계 인사 중징계 권고해도 종목단체가 묵살

김종엽 뉴스1 기자

윤이나 '오구 플레이'로 본 골프의 부정행위

타수 속이고..공 옮기고… "유소년 골프서도 빗나간 승부욕"

김정훈 동아일보 기자

대한체육회 2022 여성스포츠진흥 토크콘서트

여성 생활 스포츠 참여율 61.4% 시대…
"한국 체육단체 여성 임원, 여성 지도자 늘려라"

진혜민 여성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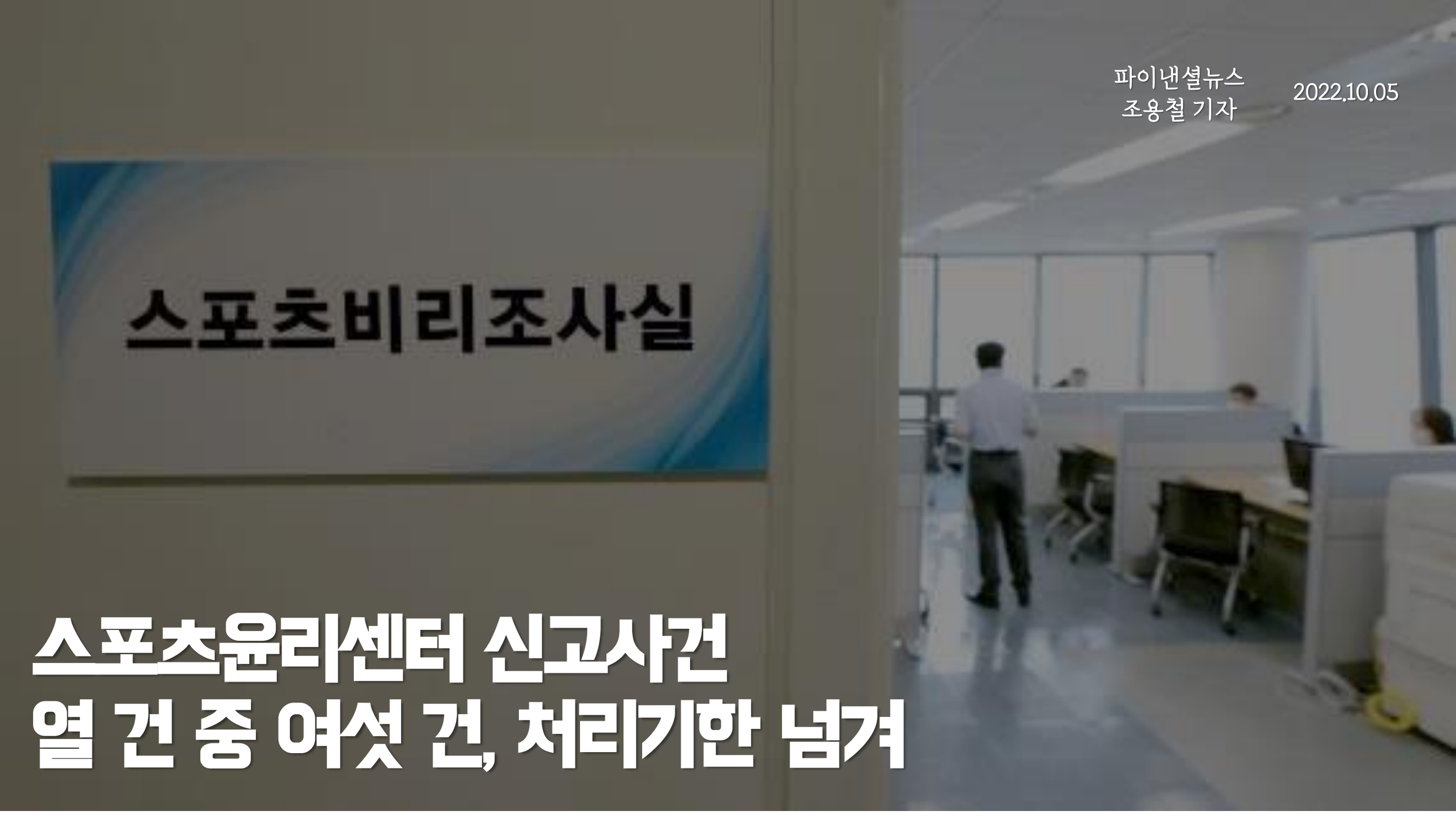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파이낸셜뉴스
조용철 기자

2022.10.05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열 건 중 여섯 건, 처리기한 넘겨

체육계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사건 열 건중 여섯 건이 규정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754건 중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8월 기준, 445건(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르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최장 15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일에 달했고, 가장 길게는 608일에 걸쳐 징계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성범죄.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기한내 처리율이 37.8%로, 승부조작. 횡령.배임.기관사유화와 같은 비리사건의 기간 내 처리율(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210050855306951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마련... 현장 목소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기 중 학생 운동선수의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30일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종목별 대회 수와 평균 대회일수에 근거해 44개 종목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 선수가 학기 중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종목별로 여건이 상이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석인정일수 완화에 따른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면 보충수업 지원방안과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들어 확정할 계획이다.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과 '소년체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지원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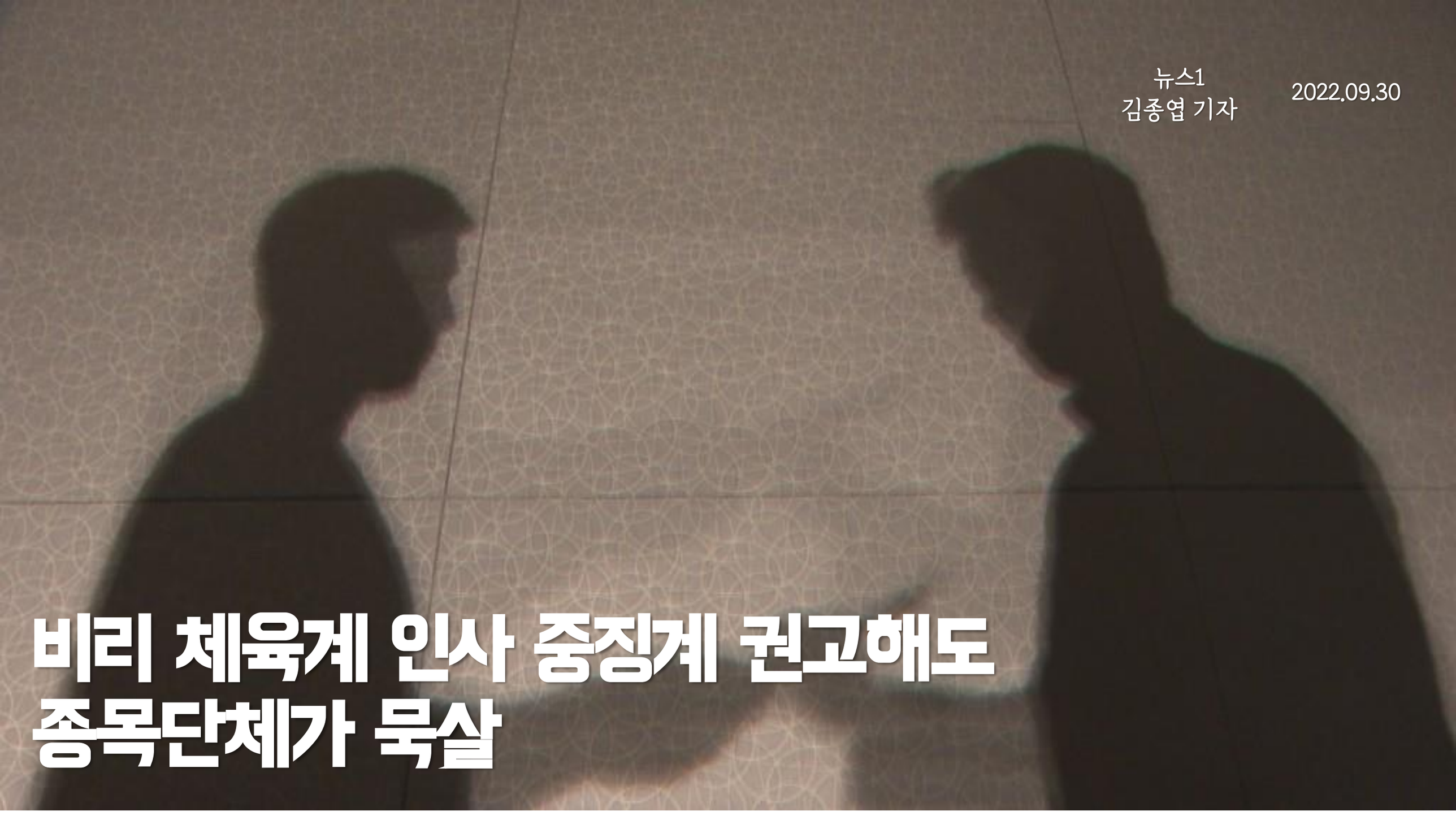
문체부는 10월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 종목단체 등 체육계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별 면담, 서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개선안 초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수정·보완한 개선안은 교육부에 문체부 안으로 최종 전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30_0002033151&cID=10501&pID=10500

뉴스1
김종엽 기자
2022.09.30



비리 체육계 인사 중징계 권고해도 종목단체가 묵살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나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해도 해당 종목단체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가 흔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19년 스포츠계의 '미투'와 조재범 사건,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 이후 스포츠 분야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중징계 29건, 징계 77건, 경징계 3건, 수사 요구 2건 등 모두 111건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49건만 징계가 결정됐고, 나머지 61건은 각 종목단체에서 심의를 벌이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가 결정된 49건은 중징계 20건, 징계 26건, 경징계 3건인데, 중징계를 요구한 20건 중 40%인 8건에 대해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를 요구한 26건 중 62%인 16건도 견책, 경고, 주의에 그쳤고, 경징계 3건 중 2건은 징계 취소,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61건 중 8건은 1년 이상, 20건은 6개월 이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후 징계 요구가 권고사항이라도 충분한 근거가 있기에 판단된 조치인데 해당 종목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징계가 지연되고 있다"며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각 종목단체 징계가 부실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819263

타수 속이고...공 옮기고...
“유소년 골프서도 빗나간 승부욕”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

2022.10.04

《윤이나(19)는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가장 관심을 받던 신인이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것을 치는 행위인 ‘오구(誤球·wrong ball) 플레이’로 KLPGA투어 주관 대회 3년간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만 50세 이상 출전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한 선수가 이른바 ‘알까기’(공이 분실되거나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을 때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새 공을 꺼내 플레이하는 것)를 하다 적발돼 실격됐다.

최근 국내 골프 대회에서 규칙 위반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그동안 쉬쉬해 왔지만 윤이나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골프계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 갈 유소년 무대에서도 규칙 위반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유소년 무대에도 발생하는 부정행위

대한골프협회에 따르면 2019년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스코어 오기를 한 유소년 선수가 적발돼 실격당했다. 스코어 오기는 자신이 보기를 했음에도 파를 했다고 적는 등 타수를 줄이는 행위다. 2020년에도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한 유소년 선수가 오구 플레이를 했다가 실격됐다. 지난해 열린 서라벌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에서는 그린의 볼 마커를 임의로 옮긴 뒤 다시 제자리에 놓지 않고 그대로 퍼팅을 하는 이른바 ‘동전치기’를 하다 적발돼 3개 대회 출전 정지를 받은 선수도 나왔다. 매년 유소년 무대에서 선수들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유소년 골프 관계자는 “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있다”며 “대회 관계자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 신고가 돼도 증거가 없어 적발되지 않을 뿐 부정행위 선수들은 적발된 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PGA, KLPGA투어는 거의 모든 대회가 TV로 중계되고, 많은 갤러리가 경기를 지켜본다. 보는 눈이 많아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긴 쉽지 않다. 그런데 TV중계와 갤러리가 없는 유소년 대회 등은 선수들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보통 대회 때 3개 홀당 경기위원이 있지만 모든 선수들을 일일이 지켜보기 어렵다. 또 골프는 다른 종목과 달리 경기를 지켜보는 심판도 없다.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와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선수들의 부정행위가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다. 대한골프협회 관계자는 “부정행위 신고의 90% 이상이 경기를 함께한 선수들이 한다”면서도 “영상 등 증거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 신고를 당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징계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한국초등골프연맹 주관 대회에서 우승 선수에 대해 함께 경기했던 선수들이 규칙 위반을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 그대로 우승이 인정되기도 했다.

○ 일부만 설 수 있는 프로 투어 무대

프로 투어 무대는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설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선수는 513명(남 243명, 여 270명), 중학생 선수는 762명(남 353명, 여 409명), 고등학생 선수는 852명(남 474명, 여 378명)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난다. 하지만 KLPGA 1부 투어는 120명 정도만 뛸 수 있다. 1부 투어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2, 3부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정회원 선발전(매년 10명)을 통과해야 한다. KPGA도 1부 투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매년 120명 정도다.

국제대회 성적 등에 따라 KLPGA, KPGA 정회원 자격을 주는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히기도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 여러 국내 대회에 출전해 포인트를 쌓아야 한다. 올해 국가대표는 남녀 8명, 상비군은 30명 정도다. 국내 투어 한 관계자는 “어렵게 투어 정회원이 돼도 투어 무대에서 상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선수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자료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4/115775363/1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KLPGA투어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활동했던 한 선수는 “한국 선수들은 유소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세계에 내몰리고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 등의 기본 교육 대신 이기기 위한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어린 선수들의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부모들도 일부 잘못이 있다. 20년 넘게 유소년 골프를 가르치고 있는 한 코치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프로 투어 선수로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아이에게 24시간 붙어 있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며 “이런 걸 보상받으려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양심보단 성적에만 집중하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낸다”고 했다.

○ 강한 징계와 어릴 때부터 윤리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강한 징계로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골프 관계자는 “선수들이 규칙 위반을 해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으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수들은 걸려도 큰 제재가 없으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2020년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한 유소년 대회에서 규칙 위반으로 실격당한 선수들은 해당 대회 실격만 당했을 뿐 추가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규칙 위반 뒤 이를 감추거나 속이는 행위를 했을 때 선수 자격 박탈까지 이어진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오구 플레이 등 부정행위 뒤 이를 숨긴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 디오픈 챔피언십 주최 측인 R&A는 1985년 디오픈 예선 당시 그린에서 공을 고의로 건드려 홀 가까이 붙이는 행위를 반복한 데이비드 로버트슨에게 20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고덕호 PGA 아카데미 원장은 “미국에서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며 어린 선수들에게 윤리 의식을 가르친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미국 노스다코타주 고교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했던 케이트 윈자다.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고 1타를 줄인 것을 알게 된 윈자는 자진신고를 하고 실격당했다. 윈자는 “잘못을 자진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잘못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골프는 스포츠 종목 중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이다. 일부 선수들의 부정행위가 자칫 세계 무대에서 한국 골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KLPGA투어 관계자는 “골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오구(誤球·wrong ball) 플레이

경기 도중 다른 선수의 것이든, 예전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든 자신의 공이 아닌 것을 치는 행위를 말한다. 오구 플레이를 하면 2벌타를 받는데 다음 티잉 그라운드 첫 스트로크 전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각 라운드 최종 홀 경기의 경우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알리지 않으면 실격당한다.

자료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4/115775363/1

한겨레
이승욱 기자

2022.09.04

여성 생활 스포츠 참여율 61.4% 시대...
“한국 체육단체 여성 임원, 여성 지도자 늘려라”

여성 생활 스포츠 참여율은 61.4%로 남성이 주 무대인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스포츠인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체육인이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여성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체육회가 30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2 여성스포츠진흥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신정희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 인권은 민주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여성 인권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김연아를 비롯한 한국 여성 리더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선 이미 젠더 이퀄리티 2024 파리 올림픽을 향하고 있다. 우리 대한체육회도 여성 임직원의 수를 늘리고 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스포츠진흥, 현안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1부에는 윤재연 대한체육회 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윤 이사는 한국 체육단체의 여성 임원과 여성 지도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의 체육 선수 및 지도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수 대비 고학년으로 갈수록 여성 지도자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여성 편중 종목을 제외하면 여성 지도자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한국 체육단체의 여성 임원 현황은 여성 인구나 선수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여성 스포츠 종목의 산업 활성화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 행정, 마케팅, 벤처 창업,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세리나 김연경 선수처럼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SNS 활동을 통해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미 경향신문 기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는 언론이 여성의 몸과 운동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타인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태도로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며 운동하는 여성이 있다는 점을 똑바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남성의 ‘건강한 신체’는 당연했지만, 여성은 건강보다 ‘라인’을 강조하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언론의 시선도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지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능적 신체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새롭게 조명된다는 점은 차별적이었던 사회의 단면”이라며 “ 사회적으로 학습된 ‘여성성’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나다움’을 찾고, 몸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하며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운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신혜미 위밋업스포츠 대표는 스포츠를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려주는 곳은 많았지만, 스포츠를 한 나의 가치를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며 “그 시작이 바로 위밋업스포츠였고, 우리는 먼저 남성보다는 스포츠 경험이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축구, 주짓수, 복싱, 스키, 농구, 배구, 마라톤, 럭비, 야구 등의 스포츠 클래스를 제공해 스포츠가 얼마나 즐겁고 멋진 경험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스포츠 클래스에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찾는 여성 스포츠인들이 강사로 함께 하였고, 2018년부터 시작된 노력은 현재 12개 종목으로 매달 500여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시작된 스포츠 클래스는 여성 스포츠인들에게 일자리가 됐고, 이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했다.

박재민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이사는 여성 스포츠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해왔지만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여성 스포츠는 오랫동안 스포츠에서 등에 난 여드름 같은 존재였다”며 “하지만 현재 스포츠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MZ 세대의 인식을 다르다.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한다.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도 관심을 과감하게 끊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78

주간 스포츠 소식

[바코 인사이드] 숙명여고 김지현 "공부하는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http://basketkorea.com/news/newsview.php?ncode=1065620367978007

단장은 고문, 대리는 감독, 사원은 선수로…퀸컵 3위 차지한 안산 그리너스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21002/115760232/2

인니 축구장 참사 125명 사망...최루탄 쏘자 인파 몰리며 압사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210020903001

대전시, e스포츠 공개 선발 평가전…대전 e스포츠 경기장서 개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003010000300

[김세훈의 스포츠IN] AFC가 몰상식한 단체가 아니길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0030945003&sec_id=520101&pt=nv

LG유플 '스포키' 전격 출시…국내 최고 스포츠 포털로 키운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10/869752/

국내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2조원 육박…'대중 스포츠 맞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9039800007?input=1195m

제천시 내년 70개 스포츠대회 유치…"연 35만명 방문"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107400064?input=1195m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64083?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